

# 장애인과 일터

Vol.342

2023 OCTOBER  
KEAD Monthly Magazine


## 꿈틀꿈틀, 배움의 즐거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OCT, Vol.342

**꿈틀꿈틀, 배움의 즐거움**

거리의 나뭇잎들이 빨간색, 주황색, 황금색으로 곱게 단풍물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완전한 가을날이네요. 시원한 공기와 맑은 하늘 아래, 알록달록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고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배움을 통해 어떠한 결실을 맺으셨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꿈틀꿈틀, 배움의 즐거움
- 04 **생각 더하기**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 배움
- 06 **공감 인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페럼림픽의 역사 알아보기
- 10 **일터 트렌드**  
의복관리원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미래의 희망을 추출하는 바리스타들입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미래를 그립니다.”
- 20 **우리는 KEAD**  
“교육연수부 막내즈, 가을 향 찾으러 왔습니다.”
- 24 **KEAD 포커스**  
제9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고용부분) 수상작
- 28 **세계는 지금**  
캐나다, 세계 최고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알아보다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도파민 디톡스 해보셨나요?
- 34 **배리어프리 여행**  
낭만 도시, 강릉
- 36 **컬처 플러스**  
독일 영화, 패러다이스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톨**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심장장애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 꿈틀꿈틀, 배움의 즐거움

### 배움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내재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 중의 하나는 계속되는 배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르신이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며 지식을 쌓고 성취감을 얻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아침 운동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댄스 교실에서 역동적인 춤을 추며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러한 도전은 무언가를 꼭 이뤄야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아니라 배움을 향한 열정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니까요.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은 단조롭던 일상을 흔들고, 사그라들던 열정을 다시금 타오르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뿔어져 나오는 이러한 열정은 더 나아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요.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농부가 여문 곡식을 거두며 그동안 흘렸던 땀의 대가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배움을 향해 힘차게 달려오셨는지요. 그 어떤 배움이든 알록달록한 열매처럼 다채로운 결실을 맺으셨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을 향해 꿈틀꿈틀, 준비하고 계실 여러분의 앞날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 배움

글 김경식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이사



## 나의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다

나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장애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늘 위축되고 자신감 없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시쳇말로 존재감 없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 후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에서의 성실성을 눈여겨보신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그곳의 경쟁구조 속에서 심신이 지치기 시작했고 서서히 장애가 심해졌다. 결국 직장을 퇴사하고 재가 장애인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나의 진짜 배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 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던 중 선배 장애인의 권유로 지역장애인자립생활대학에 입학했다. 장애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함께 여러 장애 유형의 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장애와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기가 커졌다. 그리고 한평생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장애를 완전히 인정하고 편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나니 그동안 숨기거나 부끄럽게만 느꼈던 나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와 같은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더 깊이 공부해보자는 결심에 이르렀다.

## 학부에서 박사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다

2013년에 석사를 졸업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는 주변의 만류에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장애인과 밀접한 장애인 재활공학을 공부하게 됐다. 어려움은 꽤 있었지만, 부산에서 경산까지의 통학시간을 아끼고자 기숙사에서 1년간 생활하는 노력도 했다. 또 주변 동료학생들,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그간의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인터넷 장애인 신문 ‘에이블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배워서 함께 나누자!’는 평소 소신대로, 300편이 넘는 장애 관련 칼럼을 게재하면서 지금까지 실친 중이다. 학업 면에서도 학술적인 관심사인 ‘장애인모바일접근성’ 관련 논문으로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등 국내외 여러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다. 이러한 결실들이 모여 2016년 ‘BK21플러스사업’ 우수 연구 인력으로 선발되어 교육부 총리 표창까지 수상하였다.

나는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출신학교와 전공분야가 다 다르다. 학부전공은 생물학, 석사는 의용공학, 박사는 재활공학에 이르기까지 내가 관심을 가졌거나 필요로 했던 분야를 찾다 보니 나온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물학을 통해 생물 또는 인체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의용공학을 통해 의료기와 관련기술에 대한 식견을 얻었으며, 재활공학을 통해서도 그간의 인체와 의료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당사자로서의 경험에 접목한 학제 간 융합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 평생교육 필수시대, 장애인도 예외는 없다

나에겐 아직도 유효한 학생증이 있다. 장애인 관련 학문을 공부, 연구하다 보니 장애당사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다 보면 항상 연관되는 것이 ‘사회복지’였다. 그래서 또다시 나이 오십을 넘긴 올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감행한 것이다. 자연과학과 공학을 넘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나의 네 번째 대학생활은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 기반의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식의 요구가 조금은 낮설지만, 최선을 다해 적응 중이다. 오히려 장애를 가진 나에게 적합한 형태일지도 모르겠다. 배움에 대한 나의 무모하고 즐기찬 도전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명언은 이전 시대 배우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강조한 말이라면,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자조적인 학습모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평생학습 필수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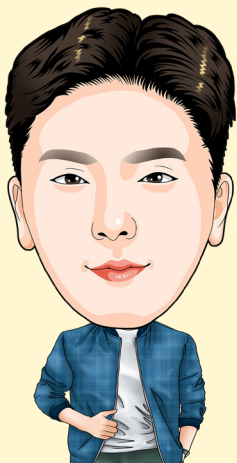
평생교육 필수시대에 장애인들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과 관련 서비스가 시시각각 생겨나고 소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도전해요, 끝없는 배움을 향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은, 더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준다. 여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도 배움을 통해 내면을 가꾸고 자신감을 얻기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밝아지기도 한다. 이들이 전하는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박종필 차장**  
공단 본부 비서실

“

배움이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려는 자세죠

본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수행비서 등의 역할을 맡아 다양한 일들을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테니스를 배웠는데요, 작은 테니스공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이니 수업 시간이 순식간에 끝날 만큼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움을 통해 저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로 인해 어떤 분야든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면이 풍성해져 앞으로의 저의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양원근 대표의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라는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며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자를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일, 이를 실천으로 옮겨 나를 바꾸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선사한다"라는 글귀입니다.

저 또한 이를 계기로 올해가 가기 전에 프리다이빙과 글쓰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프리다이빙으로 아름다운 바닷속을 누빌 생각을 하면 벌써 기대가 되고요. 글쓰기 또한 저의 일생에 에세이 형식으로 담는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배움 그 자체를 늘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재성 교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맞춤훈련센터

“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줍니다**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교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장애인을 이어주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많은 장애인분이 훈련을 통해 국내외 큰 기업체에 입사하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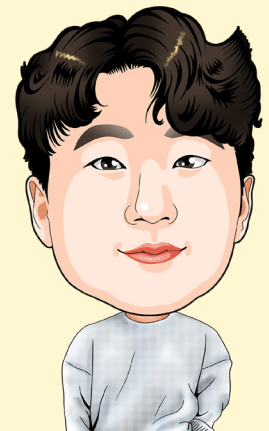
2012년경 친구 소개로 스윙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4년여 동안 스윙 댄스와 라인댄스를 추고,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너무 재밌는 30대 초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얻었지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지금도 매우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편집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버처럼 활발한 활동보다는 저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예쁘게 담아 간직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수익 창출의 기대까지 할 수 있으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지역본부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웠을 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시험을 치르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시절이었지요. 그동안 오롯이 성적을 위해 공부했던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고, 그에 대한 대답이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올 때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 자신감이 생기고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로 인해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인과 마주할 때 거부감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등 뜻밖의 결과를 얻기도 했지요. 이렇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성취감’은 또 다른 배움을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배드민턴, 수영, 그림 등 항상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시는 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지요. 저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세를 본받아 향후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성취감’을 기대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수영 수업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박석하 대리**

경기지역본부 보조공학기기

“

**다양한 배움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져다줘요**

# 패럴림픽의 역사 알아보기

## 어떻게 개최되었을까?

패럴림픽(Paralympic)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해 펼치는 올림픽대회이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최하여 4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해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회 대회부터 패럴림픽 명칭이 사용되었다.

지금부터 패럴림픽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201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모습

### 다친 군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서 시작

패럴림픽은 1945년 영국 스톡맨더빌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루드비히 구트만(Ludwig Guttmann)’에 의해 시작되었다. 스톡맨더빌 병원은 영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이곳에서 구트만 박사는 병동의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로 아이스하키의 공인 puck(Puck)을 치며 여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재활 프로그램에 스포츠를 도입했다. 양궁, 탁구, 당구를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 휠체어 폴로, 농구와 같은 팀 경기도 적용하였다.

1948년 그의 제창으로 스톡맨더빌 병원의 잔디밭에서 척수가 손상된 16명의 전직 군인이 양궁 대회에 참가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시초가 되었으며, 경기가 치러진 도시명을 따라 ‘스톡맨더빌 대회’라고 불렸다. 매년 스톡맨더빌에서 열리던 이 대회는 1952년 네덜란드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국제 대회로 발전했고, ‘국제 스톡맨더빌 게임’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후 1960년 국제 스톡맨더빌 게임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면서 비로소 제1회 하계패럴림픽이 되었다.

### 패럴림픽의 전환점이 된, 88 서울올림픽

초기 패럴림픽은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했기에 하반신 장애를 뜻하는 ‘하반신마비(Paraplegia)’와 ‘올림픽(Olympic)’이 결합한 단어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1972년 독일에서 개최한 제4회 하이텔베르크 대회까지 척수 장애인들만이 참가하였다. 그러다가 다른 장애인들도 경기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그리스어의 전치사 ‘나란히, 함께(Para)’를 사용해 올림픽과 동등하게 개최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써 1976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5회 토론토 하계 패럴림픽대회부터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으로 참가 범위가 확장되었다. 1976년 첫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스웨덴 외른셀스비크에서 개최됐다. 처음에는 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렸지만 개최 장소는 달랐다. 하지만 1988년 서울에서 열린 하계패럴림픽은 패럴림픽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 대회는 하계올림픽이 끝난 후 바로 그 도시에서 올림픽 때 사용한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같은 해에 같은 도시에서 개최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1996년 미국 애틀랜타, 2000년 호주 시드니 하계패럴림픽도 같은 방식으로 열렸다. 이를 통해 2001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상호협정을 맺었으며, 전 세계인의 축제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10월 22일부터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17회 하계패럴림픽이 개최된다. 이 또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 이어 열리며 올림픽 못지 않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많은 해외 방문객과 4,400명의 패럴림픽 선수, 20개의 패럴림픽 경기장까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2024년 파리의 여름이 기대된다.

패럴림픽이 전 세계인의 대회라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기대회가 있다. 바로 ‘아시안 패러게임(Asian Para Games)’. 이는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가 주최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들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 경기대회이다.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1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다. 이후 2010년 중국 광저우대회부터 아시안 패러게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에서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이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42개국이 참여하며 양궁, 배드민턴, 시각장애인 축구, 카누, 유도, 사이클링, 휠체어 농구, 휠체어 테니스 등 22개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스포츠는 비단 승리와 패배뿐 아니라 경쟁, 화합 등 모든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은유다. 특히 다양한 장애인 선수들이 각기 다른 종목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올림픽 경기, 그 이상의 가치가 느껴지기도 한다. 4년마다 열리는 패럴림픽, 그리고 아시안 패러게임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장애인 선수들에게 우리 모두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

## 의복관리원

# 장애인고용으로 특별한 사내 복지를 제공하다

지난 코로나 시국 동안 사람들은 호흡기 건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인 것.  
 공기 청정기나 의류 관리기와 같은 전자제품이 불티나게 팔린 이유다. 공단은 이러한 시류를  
 빠르게 읽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복관리원’이라는 신규 직무를 개발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한 직무인지 지금부터 살펴본다.

글 편집부

\* 2022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 커지는 의류 관리기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이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런 상황에 특수를 누리게 된 전자제품이 있으니 바로 의류 관리기다. 처음 출시할 때 소비자의 반응이 미미했던 의류 관리기는 사람들의 위생 민감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더욱 이슈화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2018년 30만 대 규모였던 국내 의류 관리기 시장은 2023년 현재 70만 대 수준으로 약 2배 이상 커졌다.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구매하고 싶은 가전제품 1위라고 한다. 의류 관리기는 어느덧 필수가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현상을 눈여겨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로 ‘의복관리원’이라는 직무를 개발했다. 의복관리원이란 사업장 내에 배치한 의류 관리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무복 등 의류를 탈취, 살균, 건조 및 관리하는 직무이다. 발달장애인은 변화가 적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면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다. 등록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전 연령대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 그 비중이 최대 76%에 달할 정도로 장애인 인구 구성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 및 전체 장애인구와 비교해 높을 뿐만 아



나라, 일자리를 얻게 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은 공단이 매우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이다.

### (주)러쉬코리아, 장애인고용 시범사업 선정 과정

이러한 상황 속에 신규 직무를 개발한 공단은 의복관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에 고심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포함된 의류업계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눈을 돌려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거나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는 기업에 주목했다. 세계적인 친환경 브랜드 '러쉬'의 한국 지사인 (주)러쉬코리아와 접촉에 성공했다.

러쉬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20~30대의 직원들이 다수인 젊은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오티즘엑스포에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내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직접 고용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공단은 러쉬코리아에 의복관리원 직무를 소개하고 고용사례 개발을 위한 업무협의를 수시로 가졌다. 또 사업체 특성에 맞게 직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건을 협의했다. 그 결과 의복관리원 직무는 직원 복지의 영역에 해당해 제약이 적고,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라는 장점도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후 공단은 관할 기관인 서울동부지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의복관리원과 더불어 해당 인력의 근태 관리 및 업무 적응 지도를 담당할 장년 장애인 잡매니저를 모집했다. 또한 면접관인 러쉬코리아 경영진과 인사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용개발원 개발자료인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안내서' 내용 중 장애 유형별 고려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등 면접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 2명과 잡매니저 직무에 여성·장년 장애인 2명이 선발되었다.

### 발달장애인 2명과 잡매니저 2명 취업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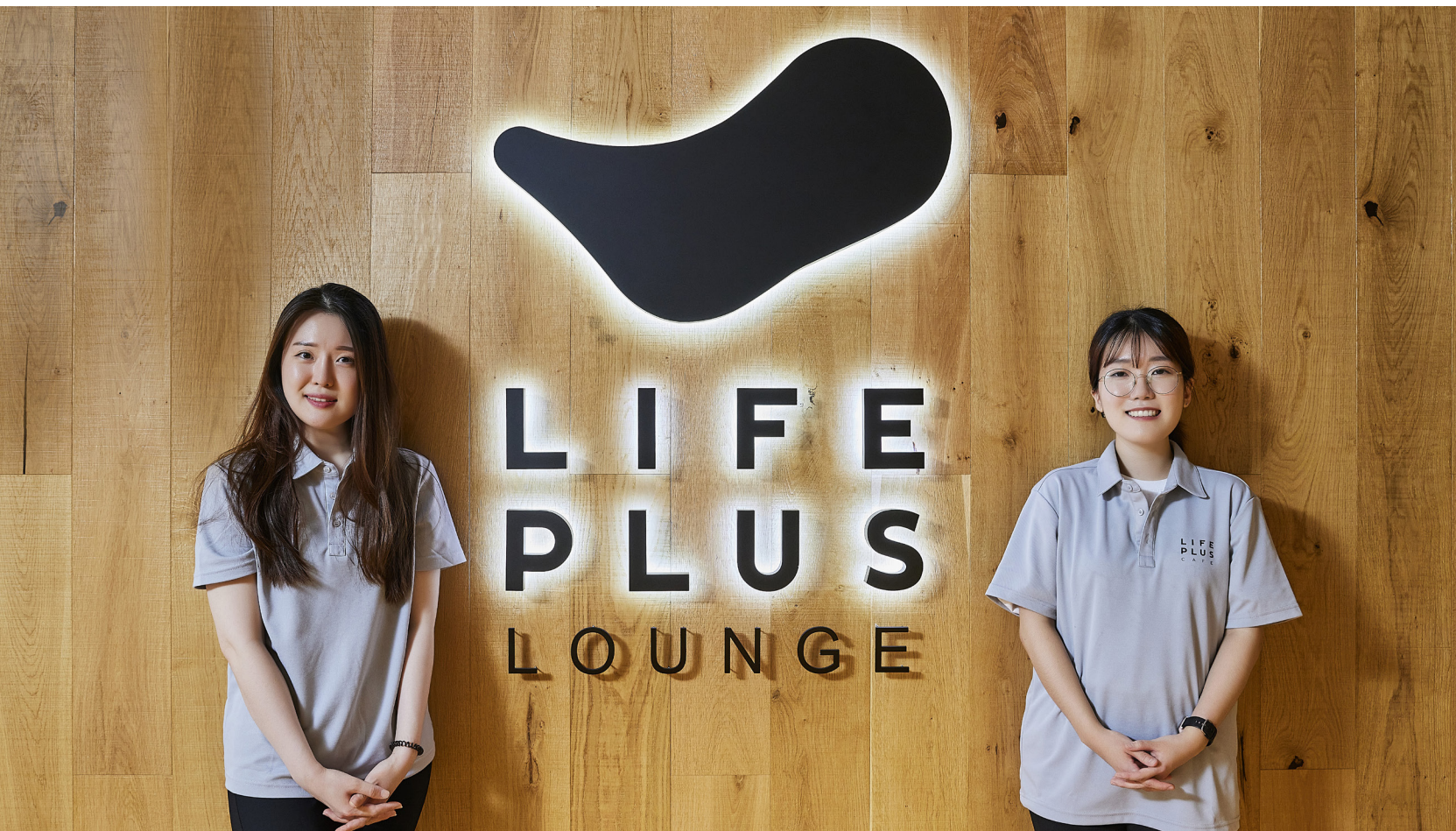
선발된 4명은 사업체 배치 전, 사전 교육을 받았다. 잡매니저에게는 발달장애 유형 관련 고려사항을, 발달장애인의 의복관리원에게는 직장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와 주의사항을 교육해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훈련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훈련생은 의류관리기를 청소, 작동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고 관리가 끝난 의류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배웠다. 보조업무로 배송품을 수령 및 보관하는 일과 사무공간을 정리, 정돈하는 업무 등도 익혔다. 잡매니저 2명 역시 입사 후 발달장애인 의복관리원의 적응을 도왔고, 시간이 갈수록 직무에 잘 적응하며 장애인 인턴 제도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의복관리원 직무 훈련생 2명도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이처럼 공단은 새로운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창출하였고,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 있어서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일터가 되길 기대해본다.

## “미래의 희망을 추출하는 바리스타들입니다.” 한화생명 사내카페 ‘Life Plus’ 이수연·조정인 바리스타

주문받는 곳 앞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를 뜻하는 수어가 그림으로 비치된 카페가 있다. 손님이 먼저 서툰 수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수어로 화답한다. 바로 한화생명 사내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이수연·조정인 바리스타는 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내 직원들과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오로지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 좋은 힘을 선사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오늘도 63빌딩으로 활기차게 출근하는 두 사람을 만나고 왔다.

글 편집부 / 사진 김덕창



한화생명 사내카페 ‘Life Plus’에서 근무하는 이수연·조정인 바리스타

## 63빌딩 사내카페를 여는 청각장애 바리스타들

여의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63빌딩. 한화생명 본사인 이곳 7층과 45층엔 사내형 복지 카페 'Life Plus Cafe(이하 라이프플러스카페)'가 있다. 사내 직원들의 업무적 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서관인 공간 중심엔 고소한 커피와 음료를 제조하는 청각장애 바리스타들이 자리한다. 올해 2월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문을 연 이곳은 8명의 청각장애 바리스타와 매니저, 1명의 지적장애 바리스타가 함께 만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맞춤훈련센터를 비롯한 전문 기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으며 직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바리스타들이다. 그중 이수연·조정인 바리스타는 각각 올해 1월, 2월에 입사해 어느덧 반년 이상의 바리스타로서의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 7시 30분, 한화생명 직원들보다도 일찍 출근하는 오픈조는 에스프레소 기계와 각종 장비들을 점검한다. 동시에 오븐으로 디저트류의 빵을 굽고, 에스프레소 기계로 샷을 추출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비대면 네이버페이 주문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알림이 덩동덩동 울림듯이 들어온다. 음료를 순차적으로 제조하고 있으면 사내직원들이 각각 키오스크와 포스기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주문 시스템 흐름이 보였다. 올해 2월에 입사한 이수연 바리스타는 처음부터 주문 흐름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쓴 분들이 많아 포스기 앞에 오신 손님들의 입 모양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주문으로 유도하거나 네이버페이 주문을 유도하면서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천천히 말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구비되어 있는 손 글씨 패드와 갤럭시 탭으로 필담을 나누기도 한다. 혹은 주문지를 보여주거나 매장 상단에 있는 전광판 대기 화면을 가리키며 소통하기도 한다. 처음엔 떨려서 대면응대에 서툴렀던 조정인 바리스타는 이제 가장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처음엔 포스기 만지는 것부터 어렵더라고요. 실수도 잦아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와 커피를 만드는 일부터, 포스기 조작, 고객 응대까지 집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지금은 제가 스팀 대장이예요. 바리스타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바리스타가 되길 잘했어요

이수연 바리스타는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했었고, 조정인 바리스타는 디자인과를 나와 미술 공부를 했다. 바리스타의 길을 오기 전엔 주저함도 많았던 두 사람. 스스로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돌파구로 바리스타를 선택했지만 후회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수연 바리스타는 오히려 몰랐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고.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적응력이 빠른 편이더라고요. 학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실전에 투입된 첫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흐름을 파악하거나, 손님 응대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제가 늘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스타를 하지 않았다면 모를 제 모습이죠.”

조정인 바리스타는 바리스타의 길을 걷기 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고생스러울까, 상처 받을까 노심초사했던 부

모님이 이제는 그녀의 바리스타 길을 적극 응원하고 있다고. 전공을 살려 동료들과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바로 킥홀더에 캐리커처를 그려 선물하는 일이었다.

“점장님, 매니저님, 그리고 동료분들을 그려드리다가 반응이 좋아서 손님께 그려드렸는데 감동했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붐비지 않는 시간만 그려드릴 수 있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 오래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라이프플러스카페엔 음료와 베이커리류를 포함한 총 60개의 메뉴가 있다. 처음엔 레시피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두 바리스타가 꼽는 가장 중요한 역량도 ‘레시피를 외우는 일’이다. 다음엔 레시피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섬세함과 고객을 응대하는 친절함을 꼽는다. 라이프플러스카페의 김승길 점장은 이 모든 걸 다 해내고 있는 두 바리스타를 높게 칭찬했다.

“하루에 1,500잔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카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이 있거나 불만접수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손님과도 동료들과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 매장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수연·조정인 바리스타가 꼽는 이곳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쉬는 시간과 30분 조기퇴근제다. 가장 바쁜 시간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엔 모든 직원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엔 돌아가면서 넉넉히 휴식시간을 마련한다. 다른 사내 카페보다는 쉬는 시간이 1.5배 많은 편으로 체력적으로 넉넉히 회복하고 다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휴식 공간도 한강 풍경을 바라보고 쉴 수 있어 두 바리스타가 꼽는 매리트 중에 하나다. 30분 조기퇴근제는 말 그대로 주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복지다. 오픈조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마감조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각각 오후 4시, 오후 5시 반에 퇴근할 수 있다. 바리스타로서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환경에 두 바리스타는 만족하며 오래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정인 바리스타가 커피 원두를 담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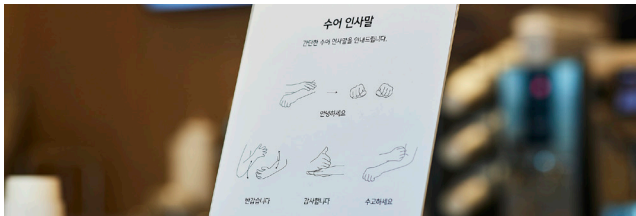


이수연 바리스타가 추출한 커피 원액을 컵에 따르고 있는 모습

이는 회사도 같은 마음이다. 이전에도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일했던 이력이 있고 수어를 할 줄 아는 김승길 점장은 오래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직원들을 서포트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은요, 입 모양의 움직임과 표정으로 의사소통하는 구화와 손으로 표현하는 언어인 수어,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끼리 서로 동료의 말을 더 잘 알아듣고 싶은 마음에 수어를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팀워크라면 중도에 탈락하는 분 없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바리스타는 인터뷰하는 내내 긴장했지만, 막상 에스프레소 기계 앞에선 긴장감은 쪽 빼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들의 필드에서 자신감을 찾는 모습에서 프로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이 매일 추출하는 샷들이 손님들 에겐 작은 씬표를, 바리스타 자신에겐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란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



간단한 수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배치한 수어 인사말 그림



커피머신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 완성한 달콤한 커피

### 미니 인터뷰

이수연 바리스타



**"수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리스타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도전하길 잘했다고, 별것 아니라고, 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당분간은 동료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 멀리 봤을 때 저와 같은 청각장애 손님들 만나면 더 멋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설렘도 있답니다.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나아갈 저와 동료들이 기대됩니다.

조정인 바리스타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할 거예요."**

저에게는 작지만 큰 저만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하는 일이에요. 내년부터 나가고 싶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리스타를 꿈꾸는 분이려면 학원부터 다녀보시라고, 한걸음 먼저 움직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달라졌거든요. 없었던 자신감도 생겼고, 동료들도 생겼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미래를 그립니다.”

## 오토모니터, 장애인 일자리 열 배의 성장을 일구다

미디어 모니터링 전문회사 오토모니터(Otto Monitor)는 사업의 출발부터 장애인과 함께였다. 온라인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의 바다에서 장애인 일자리라는 가능성을 탐색하다 보니, 어느덧 임직원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오토모니터를 찾아갔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다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오토모니터(Otto Monitor) 직원들





### 미디어 모니터링 분야에서 개척한 장애인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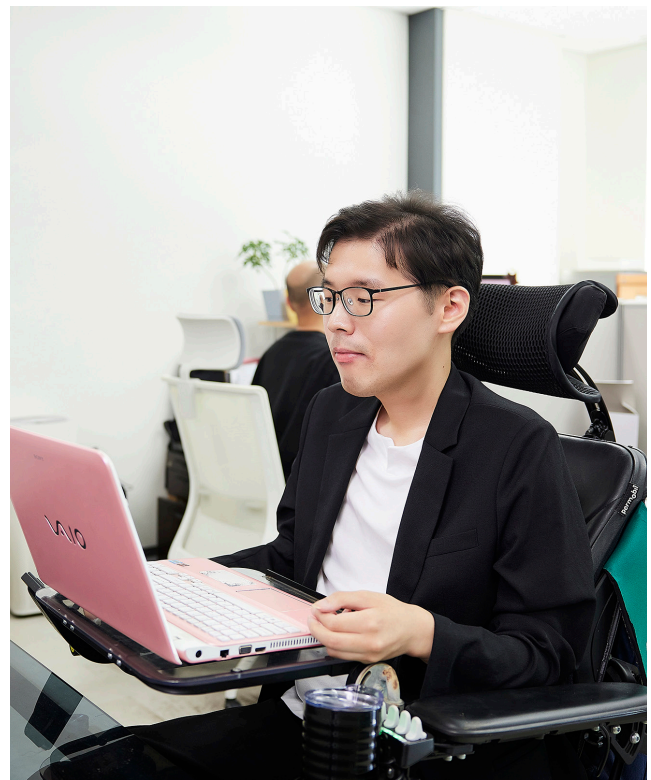
오토오모니터는 미디어 모니터링 회사로 2009년 출발했다. 김브라이언홍일 대표와 문영술 총괄이사는 설립 초기부터 온라인이라는 시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가능성을 포착했다. 장애인 3명을 고용해 시작한 사업은 14년이 흐른 지금 50명으로 늘었다. 이중 지체장애인은 38명,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이상이 70% 이상이다. 장애인 임직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대부분이 8시간, 일부 직원은 4시간 내외 재택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나는 여론과 현상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고객사가 미디어 모니터링을 의뢰하면 직원들은 소비자 반응과 여론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리포트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나 상품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매일 수많은 '좋아요'가 쌓이고, 각종 SNS를 타고 트렌드가 순식간에 바뀌는 마케팅 시장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은 기업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기존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그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토오모니터는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솔루션,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맨파워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장애인 고용의 품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영술 이사)



송진환 팀장이 동료들과 업무 상의를 하는 모습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송진환 팀장

## 경쟁이 아닌 함께 이기는 역량 강화 전략

장애인 고용 계기를 묻는 말에 문영술 이사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저 이 업무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출퇴근 등 활동은 불편하지만 늘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컴퓨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예측은 사업 초기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며 확신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기업이 근무 환경에 위기를 맞았지만, 이미 채용 면접부터 근무환경 조성까지, 비대면 시스템이 자리 잡힌 오토모니터는 더욱 빛을 발했다. 대면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며 모니터링 시장이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협력사를 늘리며 성장은 거듭되고 있다. 현재는 뉴욕지사를 설립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제작, 퍼포먼스 마케팅 등 다양한 온라인 지원 업무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온라인 모니터링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 신규 직원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채용 외에도 입사한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책상과 모니터, 방석, 마우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직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입사한 직원은 교육담당 팀장을 통해 약 2주에서 한 달간 직무 교육을 받고, 회사 자체 솔루션 적응을 위해 시스템 사용설명서를 동영상으로 제공받는다. 또 오토모니터 직원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협력사에 제공하는 임직원 자기 계발 사이트에 접속해 무제한 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기획팀에서는 교육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사내 인트라넷에 배포하기도 한다. 박지현 팀장은 교육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자기 계발 성과를 일군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내에는 여러 직무가 존재합니다. 직무 별 특성에 집중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하지지체 장애인이 재택근무로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할 때, 활동적인 비장애인보다 업무 성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신규 고용 시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채용하는 이유 역시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와 만나 빛을 발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인재를 적절히 채용하는 능력도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의 잠재력을 믿고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길 바랍니다.” (박지현 팀장)

##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다

오토모니터와 경쟁하는 회사는 대부분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이다. 국내 굴지의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과도 정보수집을 위해 촌각을 다투다. 이 경쟁에서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서 얻는 특혜는 없다. 장애 여부를 넘어 당당하게 경쟁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직원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제는 오랜 업력으로

신뢰를 쌓아 믿고 부르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은 성취를 더 많은 이와 나누는 것이 오토오모니터의 새로운 목표다.

오토오모니터는 ‘세상에 희망 나누기’라는 목표로 2018년 ‘With OTTO’ 사회공헌팀을 만들었다. 꾸준히 직원 개개인의 재능을 살려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원 대다수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벽보와 하지지체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세상지도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고, 아름다운 가게와 느티나무 도서관 등에 꾸준한 기증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밖에 비대면으로 장애인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여부를 넘어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토오모니터는 업무를 통해 성취하고 발전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돕는 것 또한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팀 별 운영으로 직원의 고충을 경청하고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는 등 직원이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고 성장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 분야에서 꾸준한 성취를 이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영술 이사)

오토오모니터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노하우와 인프라에 더해 장애인 근로자의 맨파워가 그 기반이다. 평균 5년 넘게 꾸준하게 근속한 직원들의 경험은 앞으로의 나날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온라인 시장에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킨 오토오모니터.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와 건승을 빈다.

### 미니 인터뷰



#### “모니터링 분야의 인재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 송진환 팀장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오토오모니터에 입사하여 어느덧 십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모니터링 업무부터 시작해 이제는 한 팀의 팀장으로 팀을 이끌며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교육한 직원이 업무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오토오모니터는 장애인 근로자에게겐 굴지의 대기업만큼이나 좋은 회사라고 말해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의 보조자가 아닌, 중심이 되어 함께 이끈다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저를 이끌어 주신 김범수 팀장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김범수 팀장님처럼 후배의 성장을 이끌며 오토오모니터와 함께하겠습니다.

# “교육연수부 막내즈, 가을 향 찾으러 왔습니다.”

##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 이소희 대리, 이경수 주임

회사에서 제일 의지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고민 없이 서로를 지목할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의 이소희 대리와 이경수 주임. 가을을 맞아 나만의 룸 스프레이와 퍼퓸 핸드크림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았다. 서로의 베이스 노트가 될 두 사람이 간직할 가을 향은 무엇일까.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룸 스프레이, 퍼퓸 핸드크림을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이소희 대리와 이경수 주임

## 좋은 인연은 강한 힘을 가진다

룸 스프레이와 퍼퓸 핸드크림을 만들기에 앞서 두 사람의 향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향대 앞에서 여러 추천을 받은 두 사람, 이소희 대리는 플로럴 계열의 향을 이경수 주임은 뽕송뽕송한 파우더 향을 선택했다. 특히 평소 향수를 좋아하는 이경수 주임은 보유하고 있는 향수들의 이름을 대며 취향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소희 대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경수 주임의 칭찬을 늘어놓는다.

“우리 주임님이 향수에만 박식하신 거 같죠?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세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신지 옆에서 매번 놀란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공방 선생님의 질문에 이경수 주임이 바로바로 답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 향수는 탑, 미들, 베이스 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탑은 첫인상이자 가장 빨리 휘발되는 향, 미들은 몸통 부분으로서 향수의 특징을 구분 짓는 향, 마지막 베이스 노트는 가장 오래 남는 향으로 인상을 결정짓는 향이다. 모든 설명에 알고 있는 지식을 덧붙이며 질문하는 이 주임에 공방 선생님도 놀란 눈치다. 금목서의 상콤달콤한 향을 맡으면서 “금목서가 피면 가을이 왔다는 거래요”라고 해서 모두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향을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대리님이 늘 잘 들어주시고 호응도 너무 신나게 해주셔서 덕분에 저도 신나요. 저는 대리님의 상냥함과 배려심에 늘 빛지는 사람입니다(웃음).”

이경수 주임은 2019년 상반기에, 이소희 대리는 2019년 하반기에 입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같은 부서에 있었을 때도 의지를 많이 했지만, 이경수 주임이 육아 휴직을 하면서 앞으로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잃었다고 한다.

“휴직하고 돌아와 마음 맞는 동료와 다시금 같은 부서에 배정받는다 건 희박한 일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복직하고 보니 교육연수부에 이소희 대리님이 계신 거예요. 어찌나 든든하던지. 좋은 인연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단의 연구기관인 고용개발원, 그중에서도 공단 직원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연수부의 막내라인을 담당하는 두 사람은 기쁜 일도 답답한 일도 서로 의지하며 풀어가고 있다.

## 서로에게 오래 남는 베이스 노트 같은 사이

향수 원액과 알코올을 섞으니 룸 스프레이 100ml가 금방 완성됐다. 2주 동안 직사광선을 피한 공간에 뒀다가 뿌리면 향의 깊이가 생긴다고. 곧 건조해질 가을에 대비해 퍼퓸 핸드크림 만들기에 돌입했다. 저울 위에 용기를 올려두고 각 성분을 용량에 맞게 넣으며 소수점까지 맞추고 싶어 신중을 기하는 두 사람. 크림 베이스와 향원료, 그리고 촉촉함을 더해줄 성분과 천연보존제 등을 한꺼번에 넣어 꼼꼼히 섞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때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다.

“일할 때 저희가 가진 강박 중에 하나가 교육 진행 중에 장애가 없게 하자는 거예요. 화상 교육을 할 때 마이크가 고장나거나, 재생이 잘 되던 영상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오프라인 교육 때는 그래도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코로나 비대면 교육 때는 저희가 해결하기 힘든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인 파악부터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교육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보는 편이에요. 교육생들이 매끄러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요.”

이경수 주임은 교육생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교육을 듣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그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고 싶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배로 쓴다고. 반면 이소희 대리는 강사를 섭외하는 시간에 공을 들이는 편이다. 좋은 교육은 좋은 강사에게서 오는 거라 믿기 때문이다. 마치 나무를 할 때 8할을 도끼 가는 데 쓰는 것처럼 두 사람은 완벽한 교육을 위해 저마다의 포인트를 준비하고 버른다. 이소희 대리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다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차장님, 부장님의 조언이 필요한 막내즈예요. 인사,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제가 교육연수부에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절묘해서 모든 걸 많이 흡수하며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는 버겁다가도 때로는 교육생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그 보람만으로도 즐겁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교육,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용량을 맞춰 뒤섞은 크림이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핸드크림의 점도로 완성됐다. 실리콘 주걱을 쥐고 알뜰살뜰하게 긁어모아 용기에 담아낸 두 사람은 남은 크림을 서로의 손등에 발라주며 향을 함께 음미한다. 기분마저도 건조해질 때 이 퍼퓸 핸드크림을 바르면 기분이 뽕뽕뽕하게 좋아질 거라면서. 한결 촉촉해진 손등을 매만지며 불현듯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교육 중에 생기는 기기에 대한 문제나 돌발상황에 대한 변수에 대해 미리 겪은 선배님들이 해결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셔서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여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 주임이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자 이 대리가 이어 부장님에 대한 감사함을 전한다.

“이영우 부장님은 진심으로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발굴이 어려울 때는 해당 부서 워크숍에 참석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좋다고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만약 부서별로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아이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싶어요. 적극적으로 교육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교육이 향이 된다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향대가 나올 것만 같았다. 이론적인 교육부터, 때론 이성적이고, 때론 감성적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설계해 그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시간을 만들 것만 같다. 그것이 장애인 근로자를 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자부하므로. 두 사람 사이에 달콤, 상콤한 금목서 향이 퍼지는 것만 같았던 가을날의 만남이었다.

 체험 소감 한마디



**"우리가 하는 일은 묵직한 우디향!"**

**이소희 대리**

모든 경영지원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은 막상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이에요. 밑에서 직원들을 받쳐 주는 역할일 경우가 많달까요. 묵직한 우디향처럼 직원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다른 강사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회고하면서 올해 하반기도 직무별 교육 체계를 더욱 고민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했던 프랑수를 다시 공부해서 일상에 곁들여 좀 더 풍부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표입니다.



**"때로는 페퍼민트, 때로는 라벤더향처럼."**

**이경수 주임**

힘이 필요할 때 맡는 향이랑, 깨어나고 싶을 때 맡는 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두 가지의 교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좀 쉬고 싶을 땐 라벤더와 같은 교육을, 환기하고 깨어나고 싶을 땐 페퍼민트와 같은 교육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을 늘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필요한 교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교육연수부 누구에게든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공단 소통협력실 김현중 실장(좌)과 제9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인 박수현 씨

## 제9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고용부분) 수상작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왔다. 특히, 9회차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밀알복지재단과 협업하여 스토리텔링 공모전 고용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일상부문과 고용부문 2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고용부문 최종 입상작 11점을 선정했다. 고용부문 대상은 박수현 씨의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순간'이 수상했으며 이를 지면에 소개한다.

글 편집부

###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순간

박수현

#### 사명, 결핍이 무기가 되기까지

사명이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고, 깨닫고, 내가 조금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고용'이 나에게 사명과 같은 일이었다.



나의 첫 직장은 매년 타인의 평가로 고용이 좌우되는 비정규직이었다. 어린 마음에 이름 없는 정규직보다 불안해도 누구나 들으면 알법한 대기업이 더 중요했다. 그렇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기업의 인사팀 조직문화 담당자가 되었다. 정규직 전환이 목표였기에 매 순간 내 운명을 판가름할 심판대에 올라서는 기분이었다. “수현 씨, 미안해요.” 첫 번째 전환 보류에 이어 두 번째 보류 통보를 받던 날, 비상구 계단에 앉아 당장이라도 꺼이꺼이 터져 나올 듯한 울음을 참던 때가 선명하다. 어쩌면 나는 엄마에게 ‘자식 농사 성공한 엄마’라는 타이틀을 선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두 딸을 둔 한 부모 가장이자 장애인 여성이라는 염려 어린 시선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도록 딸로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타이틀을 엄마에게 쥐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 결국 그룹 최초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지만, 여성들의 유리 천정을 마주하며 8년의 회사 생활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퇴사 후, 인사 경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한창 하고 다니던 2018년 7월, 지난 8년의 해석되는 운명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기업에 출강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맡아 달라는 연락이었다. 인사담당자이자 동시에 장애인 가족으로서 양측의 입장과 상황을 너무도 잘 알기에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지 명확히 보였다. 나 또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직무를 공부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새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5년 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업, 기관, 학교 등 다양한 분들과 일자리와 정책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내가 경험한 세상과 생각들을 강사님들께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 척박한 내 삶이 해석되는 순간

이 글을 쓰는 2023년 7월, 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시각장애인 선생님을 고용했다. 우리는 장애인고용을 넘어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시각 장애 청년 환자’를 위한 조기 자립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은둔청년 중 일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나는 이 훈련을 가장 훌륭하게 해낼 선생님이자 조력자가 중도 시각장애인 당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고 이겨낸 시간은 그 어떤 커리어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선생님들은 너무도 이 과정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다. 나와 같은 힘든 시간을 겪지 않도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 사회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이 해석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ESG\* 트렌드에 올라타 장애인고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사례들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ESG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경영 방식을 의미

## 장애인고용, ESG 물결에 올라타는 지혜

연이은 이상 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환경친화적인 경영이 유행처럼 대두되었다. ESG의 환경(E) 부문이 안정기로 들어선 만큼 사회(S) 부문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인식 수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 대표되는 키워드는 인권, 안전(생명), 노동인데 나는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94%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이다. 상당수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 피해자이며,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비윤리적인 태도로 가슴기 살균제 참사처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한가운데에 장애인이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와 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고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기업은 ESG와 관련해 ‘장애인’을 조직 구성원으로 볼지, 소비자로 볼지 크게 두 가지 노선을 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장애인 지원자를 위해 기업의 인프라를 부족함 없이 구비하는 것이지만, 야속하게도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장애인고용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충분한 뒷받침이 어렵다면 신입 사원 대신 해당 산업의 경험과 전공을 가진 경력직 고용을 권장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담되는 일 중의 하나가 신규 입사자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명의 장애인 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이다. 이미 관련 전공과 경험이 있음에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고용 기회가 없어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상당하다. 경력직 장애인고용은 기업과 장애인 당사자 간 고충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만약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모품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장애인 용 목적의 사회적 기업으로 교체함으로써 간접 고용에 기여할 수도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카페나 편의점, 사무실 실물 관리와 청소 용역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 체육선수단이나 아티스트 후원사로써 협력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실행 예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없거나,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고객에게 친절한지 고객 접점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 위험하진 않은지, 열심히 공들여 만든 광고와 카드 뉴스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불쾌한 감정과 경험을 전달하진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마니아적 특성을 가진 이들을 우량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특성과 장애 유형을 연결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출장길이나 출퇴근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천적 장애인이 된 경우를 비춰본다면 자동차 회사에

서는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장학사업, 안전운전 캠페인, 장애 유형별 특화된 옵션 제공(또는 후원)도 좋은 사회 공헌이 될 것이다. 더불어 자동차, 모빌리티 사업 모델과 연계해 목욕이나 급식을 위한 특수차량 기부, 휠체어 기부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지지하는 활동에도 함께해 준다면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ESG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조금씩 각자의 일터와 삶의 반경 속에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행으로 옮긴다면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더욱 성숙한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

### 장애인고용, 길어도 끝이 있는 싸움

장애인고용을 다루며 과연 끝이 있는 싸움인지 궁금했고, 나름 길어도 5~7년이면 끝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1970년 출산한 산모가 아기를 품에 안고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우유병을 들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에서도 병원에서 의사가 흡연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 그런 시절을 지나 2013년 실내 금연법 제·개정을 거쳐 2018년 지금의 금연문화가 정착되었다.

대중문화 역시 2002년까지 영화 '오아시스, 말아톤, 7번 방의 선물'처럼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 역할을 하면 연기파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당사자성을 가진 장애인 배우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2022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장애인 배우의 스타성을 확인했으며, 이제는 장애인 유튜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졌다.

금연문화가 개선되는 데 약 10년, 대중문화가 개선되는데 10~15년이 걸렸다. 나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업문화도 지난 5년의 과도기를 거쳐, ESG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두 문화를 가정한다면 장애인고용 역시 5~7년 이내에 기업문화로 자리잡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으면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일로써 사명으로써 해석되는 그 순간까지 지금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길 바란다.

고용부문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밀알복지재단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주제로 한 작품집 및 오디오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부문의 입상작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신청만 하면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캐나다, 세계 최고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알아보다

## ‘테리 폭스’의 정신이 깃든 장애인복지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에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다분히 유럽에 가깝다. 영연방의 대표주자이고 영국왕 찰스 3세를 모시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또 영국 이전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부터 내려온 프랑스식 전통도 아직 남아있다. 이처럼 유럽 대륙의 영향권에 놓여있고 싶어 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고스란히 사회정책,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담겨있다.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장애인복지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알아본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비결

현재 캐나다는 유럽식 복지국가 레짐(Regime)에서 만들어진 소득보장 정책으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심지어 ‘장애인이 없는 나라’라고도 얘기할 만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역설적 칭송을 들을 정도이다. 비단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수교육, 교통 편의시설, 장애인고용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미국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을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가 캐나다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전 세계 2위이며 인구는 약 3천 800만 명.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2017년 기준, 장애인 출현율은 22.3% 정도이며 장애인고용률은 59.9% 정도다. 즉 장애인도 많고 장애인고용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장애인등록제 국가도, 의무고용제 국가도 아니다. 그런데도 높은 고용률에 필자는 부

럽기만 하다. 이러한 캐나다의 특별함은 장애인복지를 수행하는 방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범국가적 장애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국가 전체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반면, 13개 주 정부(Provincial/Territorial Government)는 그 자치권을 갖는다. 주 정부가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중요한 사회분야의 정책, 행정, 실재를 일임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3개 주는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장애인의 복지 및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및 서비스 지원이 다양하고 구석구석 전달되고 있다. 먼저 캐나다의 장애인소득보장 제도를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보자.

제도	내용
Canada Pension Plan(CPP) disability benefits	CPP를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는 연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연금과 유사하다.
	발생 시기(나이)와 연금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1,413,66을 지원한다.
Canada Pension Plan(CPP) children's benefits	캐나다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장애가 되거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원
	\$ 264.53 지원 대상 수급자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조정
Registered Disability Saving Plan (RDSP)	장애인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저축한 부분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저축지원'제도
	연간 \$3,500 평생 \$700,000까지 지원한다. 단, 이 지원금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Child Disability Benefit (CDB)	18TP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연간 \$2,985/인당(\$248.75/월)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 단, 월 소득이 \$71,060 초과 시 지원금 감소

표 캐나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Canadian Income Security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캐나다 달러, 990원/\$1

### 일곱 가지, 특별한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캐나다에는 일곱 가지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연방정부는 네 가지, 주 정부는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는 ① 장애연금(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② 상병수당(Employment Insurance Sickness Benefit) ③ 장애보훈연금(Veterans' Benefits for Disability) ④ 장애인세금지원(Disability Tax Measures)이다. 또한,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① 주정부장애수당(Social assistance Disability Benefits) ② 산재보험장애급여(Workers'Compensation Benefits) ③ 주정부고용보험장애급여(Employment-based Long-term Disability Plans)가 있다.

더불어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정부의 사례<sup>1)</sup>를 보면, 미혼 장애인은 매월 최대 \$1,258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1,703을 받는다. 또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2,423을,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이고 그 가정에 자녀가 있을 시에는 \$2,143을 받을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부부만 있을 경우보다 급여가 줄어든 것 같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별도의 아동 양육수당이 추가되어 실제 액수는 더욱 커진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장애인의 자산, 수입, 결혼 유무,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각기 다르다. 여기에 보태어 장애인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52 상당의 교통이용료(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특수교육지원 역시 유럽의 그 어느 국가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고용정책 두 가지

캐나다 장애인고용정책의 특징 두 가지를 보면 캐나다가 얼마나 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sup>2)</sup>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다른 국가들이 장애인고용을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캐나다는 지원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고용에 남다른 노력을 기하고 있다. 보호고용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단순한 작업에만 종사시키고, 일탈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해 정상화(Normalization)의 기회와 사회통합 능력을 떨어트린다고 보았다. 해서 그 대안으로 지원고용을 택했다. 분리된 보호고용보다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인력 즉, 직무지도원, 잡코치, 근로지원인을 개별적으로 배치해 사회통합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원고용은 1984년 미국 발달장애인법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캐나다가 빨리 흡수했다. 캐나다지원고용협회(CASE, Canadian Association for Supported Employment)를 설립하고, 매년 세계지원고용콘퍼런스(World Supported Employment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에 적합한 ‘포괄적근무환경(Inclusive Workplaces)’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장 적응을 위해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이다.<sup>3)</sup>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행한 세계장애동향(박윤영 박사)에서 참고.

2) 지원고용은 1984년 발달장애인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1984)에 정의한바 지적장애 학습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기존 발달장애인이 실제 직업생활(Real work)에서 통합적 환경(Regular and integrated work setting)에서 직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물론 캐나다 역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본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에서 소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1961년 장애인 직업재활법(VRP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을 규정하였다. 또 1998년 장애인 고용지원법(EAPD, The Employability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개정되었고, 다시 2004년에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협정(LMAPD, The 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arket Agreeme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방법, 지원대상,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누어지며 작업장의 규모와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10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에도 장애인의 포괄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500만 달러(한화 136억 원)를 투입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지속 가능성, 직업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세팅에 사용됐다.

특히 온라인 직업 트레이닝 기회를 확장하고 집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관리자의 업무 관리능력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장려금 제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사뭇 다른 질적 수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EAF(Enabling Accessibility Fund)는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 장애인 사회운동가, 테리 폭스를 기리며

캐나다 장애인복지, 고용정책을 살펴보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를 특별히 알 수 없지만, 캐나다의 장애인복지를 말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테리 폭스(Terry fox)'의 삶에서 캐나다 장애인복지의 정신을 찾아본다.

테리 폭스는 캐나다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캐나다 국회의사당 앞에 놓여있는 동상과 캐나다 여권 속지에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이다. 그는 19세 나이에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인공다리를 착용한 지체장애인 마라토너로서 캐나다 전국을 달리며 암 예방을 위한 '전 국민 1달러씩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9개월 동안 5,373km를 달리고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불과 21세였다.

지체장애인 청년의 세상을 향한 숭고한 모습에 캐나다는 감동했고, 기금은 5억 달러 이상 모아졌다. 세계 60개국에서 지금도 테리 폭스를 기리는 마라톤대회가 매년 열린다. 비록 장애가 있는 젊은이지만, 그가 행한 사회운동은 장애인 운동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의족의 장애인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 달렸다. 그래서 캐나다 국민은 테리 폭스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캐나다의 영웅으로 가슴에 담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장애인복지와 고용정책을 구가하는 캐나다. 그 이면에는 장애인도 사회를 위한 헌신에 앞장서고, 사회는 장애인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다하는 '상생 돌봄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 도파민 디톡스 해보셨나요? 쾌락 과잉시대를 사는 MZ세대의 균형감각

MZ세대 직장인 S 씨는 잠들기 전 다음 날 날씨를 알아보려고 스마트폰을 켜다가 당초 목적과는 무관하게 소셜미디어(SNS)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일쑤다. 연예인 가십, 기발한 상품, 댄스 챌린지 같은 슷폼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세 지난다. 슬슬 눈이 빠근하고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끄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쓸어 올리고 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도파민 중독’이 확실하다.

글 강나경 자유기고가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모습

### 삶을 다시 제 자리로

도파민 디톡스가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도파민은 원래 의욕과 활기의 원천으로 우리가 쾌락, 기대, 성취 등으로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다. 그러나 행복 추구가 지나치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돼 중독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에도 장애를 초래한다. ‘도파민 디톡스’는 도파민 분비



를 자극하는 행동을 최대한 절제해 도파민 분비를 줄여나가지는 자발적 회복 운동이다. 현대인들은 주로 디지털 기기인 인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라 부르기도 한다.

새벽까지 슷폼 콘텐츠를 끊임없이 스크롤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장시간 머무르느라 일상 패턴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올해 7월 유네스코는 학습 분위기와 능력 향상, 사이버 왕따 예방을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과 영국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SNS에 가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틱톡 사용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디지털 디톡스’를 주장할 만큼 슷폼과 SNS가 주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마음과 행동의 부조화에 답답함을 느낀 젠지(GenZ)들도 자발적인 도파민 디톡스에 나섰다. 한 달 간의 스마트폰 금욕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 삭제, 취미 활동 시작하기 등을 통해 뇌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덤폰(Dumb Phone)’ 사용이 늘어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덤폰은 스마트폰의 반대말로 2세대(2G) 이전 휴대전화처럼 별 기능이 없는 전화기를 뜻한다. 최근 배우 한소희가 삼성전자에서 2016년 내놓은 갤럭시2 폴더폰을 쓰는 게 화제가 됐다. “앱이 다 되는데 느려서 핸드폰을 잘 안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좋다”는 그녀의 인터뷰는 스마트폰 스크린에 피로감을 느낀 MZ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 도파민을 다스리는 도파민

도파민 디톡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예 전과가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상품도 등장했다. 인터넷 사용은 물론 전화 송·수신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쉽’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숲명(숲+명때리기)을 즐기는 식이다. 또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에 참가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도 인기다. 매일 스마트폰 사용량을 캡처해 올리고 전날보다 덜 사용하는 쪽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다.

명상을 하는 젠지들도 늘었다. 명상을 하면 뇌파의 변화로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된다. 이때 느끼는 몰입감, 내면의 평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은 불안과 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는 도파민의 순기능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도 결국 소셜미디어의 슷폼 시청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보다 도전과 성취, 건강한 몰입에서 오는 진짜 즐거움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용인정신병원 ‘스마트낫병원’ 센터장은 “작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내가 해냈다는 느낌을 주는 도파민이 도파민 중독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실리콘밸리 임원들이 자녀를 보내는 사립학교도 일찌감치 디지털 기기 반입을 전면 불허했다. 도파민을 만들어 내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보다 도파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도파민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때가 됐다.

## 낭만 도시, 강릉 가을 바다의 매력 속으로!

동해의 가을 바다는 낭만적이기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강릉에 가기 위해 반나절 이상 걸려 이동해야 했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통한 KTX 덕분에 조금 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가을하늘과 동해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낭만 도시, 강릉으로 떠나보자.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탁 트인 바다전경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경포해변 데크길

### 해송림에 둘러싸여 바다산책 하기 좋은 경포해변

경포해변은 백사장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송림이 4km 정도로 뽁뽁하게 둘러여 있다. 해송이 우거진 모래언덕 곳곳에 해당화가 피어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룬다. 이곳은 강릉 시내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강릉의 여러 해변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서든 진입하기에 수월하다. 특히 동해안 최대 규모 해변



답게 드넓은 모래사장을 자랑한다.

경포 해변 폭포에서 강문항 포구까지 길이 약 2km의 데크 산책로와 400여 그루의 해송림, 솔향기 공원 등이 조성되어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을 풍기는데, 해변 폭포 주변을 따라 야간조명이 설치돼 있어 밤 산책의 운치를 더한다.

###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 경포가시연습지

경포대를 등지고 ‘강릉 3.1 독립만세기념탑’ 방향으로 2분만 가보면 주변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물이 흐르고 고이기를 반복하며 자연이 만들어 낸 살아있는 습지가 나타난다. 경포호 옆에 있는 경포가시연습지는 대략 4,000년 전에 경포호와 함께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농경지로 사용하다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습지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가시연, 큰고니, 수달, 삿 등 3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포가시연습지는 홍수 시 유수지의 기능을 해주어 재해방지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니 지역의 보물인 셈이다. 습지 곳곳이 나무데크로 만들어져 있어 휠체어 이용자도 쉽고 가깝게 생태환경을 볼 수 있다.

### 소금물 대신 바닷물 간수로 만든 초당두부

강릉 하면 떠오르는 지역 특산물 중의 하나인 초당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굳이 소금 간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해의 바닷물은 손쉽게 두부를 굳힐 수 있다. 이는 서해나 남해와 다르게 동해의 바닷물은 염도가 높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무엇보다 초당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영양가도 높아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에 잘 맞는다. 두부 가게가 모여있는 초당마을에는 휠체어로 진입이 가능한 식당들도 꽤 있으니 강릉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별미로 추천한다.

#### 이용안내

##### ① 경포해변

\* 주소 : 강원 강릉시 강문동 산1

\* 문의 : 0507-1320-4901

\* 이용시간 : 연중무휴

\* 주차시설 : 공영주차장

\* 시설이용료 : 샤워장(3,000원/여름 해수욕장 기간 운영)

##### ② 경포가시연습지

\* 주소 : 강원 강릉시 윤정동 643

\* 이용시간 : 연중무휴

\* 주차시설 : 주차 가능

## 우리들의 천국 독일 영화, 패러다이스

진시황이 갈망했던 ‘불로장생’은 인간의 가장 오랜 꿈일지도 모른다. 노화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인간이 가진 능력과 재능은 생명과 젊음이 연장된 만큼 인류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미래가 과연 인간에게 천국일 수 있을까. 독일 영화 ‘패러다이스(Paradise, 2023)’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글. 차미경 문화칼럼니스트



‘패러다이스’는 수명을 사고파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 나이를 사고파는 세상, 모두에게 천국일까

35세에 요절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만약 120살까지 오래 살았다면 그는 천재적인 음악 작품을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었을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생명공학 회사인 ‘에온’의 창시자이자 CEO인 ‘조피 타이센’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 에온의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 나이를 기증할 수 있고 기증받은 나이로 젊음과 생명이 연장된다면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더 발전할 수 있다

는 것이 그녀가 예온 기업을 통해 이루려는 가치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생에서 누가 과연 그 소중한 나이를 기증할까. 바로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이다. 죽음보다 비참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탈출구 없는 난민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영화 속 나이 기증자들은 제 목숨과도 같은 젊음을, 나이를 팔아 거액의 보상금으로 삶을 연명한다.

주인공 ‘막스’는 시간을 기증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공여자 스카우트로서 ‘올해의 기증 매니저상’을 수상할 만큼 예온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다. 막스는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사하는 대신 나이를 기증받는 일을 한다. 그는 굳이 애써 기증자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미래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차고 넘쳐나므로. 반면에 부자인 사람들은 권력이든 재능이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유지한다. 필요한 만큼 돈으로 얼마든지 나이와 젊음을 사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미래, 과연 천국일까.

### 영화 속 세상에서 장애인의 삶을 상상하며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고민 대신 나는 그런 미래를 사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더 먼저 상상이 되었다. 아마도 장애인도 나이를 뺏기 위해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가난을 이유로, 양육의 고통을 이유로, 부양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나이 기증을 강요받는 주 타겟이 될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난한 난민 가족이 가장 나이 어린 막내아들을 제일 먼저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처럼.

능력 있고 재능있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믿는 예온과 그 동조자들에게 그 반대의 논리는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무능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라도 기증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이롭다고. 가족과 사회에 쓸모는커녕 부담만 되고 무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장애인은 시설에 보내지고 집 안에 은폐되는 대신 그런 시대엔 나이를 빼앗길 게 틀림없다. 이게 과연 말도 안 되는 상상일까.

위험한 장애인, 민폐 장애인은 무조건 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게 만든 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 이야기. 잔혹한 범죄 사건이 이어질 때마다 ‘범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로 마치 후렴구처럼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결론지어 버리는 보도 행태들.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 이기적인 불법 행동으로 규정된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한 수많은 적대감과 혐오 등 작금의 장애인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상상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의식의 흐름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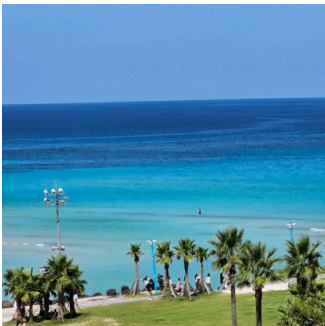
장애인은 위험한 존재도 아니고, 민폐도 아니고,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을 힘들게 하는 불량집단도 아니고, 불쌍하고 가여운 짐도 아니다. 그저 서로 도우며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하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장애인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비로소 천국 같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들의 천국은 아직 너무 멀리 있지는 않은지.

#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mailto: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은여름휴가 #제주 #여름같은초가을

가을이 어느덧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초가을이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늦여름인 것 같네요. 푸른하늘과 맑은바다,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들은 제주도 어떠실까요.

고용환경부 김○종 과장



#한강 #노을 #따릉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더운 여름, 내리쬐는 태양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한강산책이었지만 자전거와 함께하는 한강산책은 선선한 가을바람에 오늘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한강에 비친 아름다운 석양은 눈까지 정화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더 추워지기 전에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한강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권○진 님



#풋살 #골못때리는그녀 #여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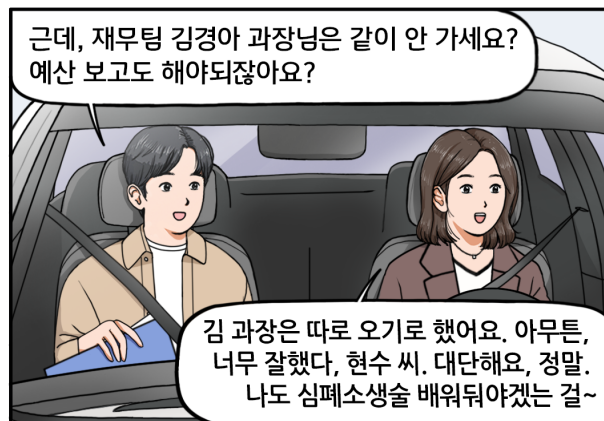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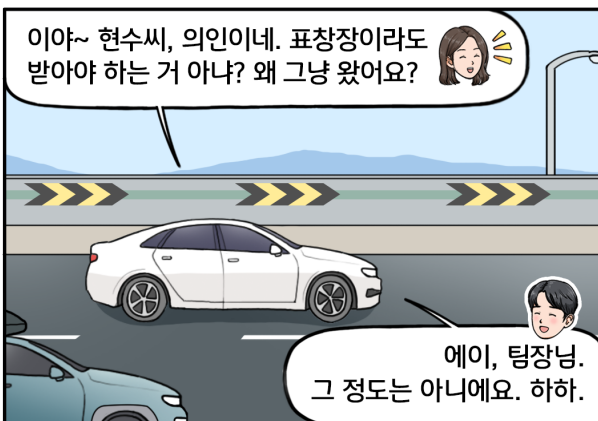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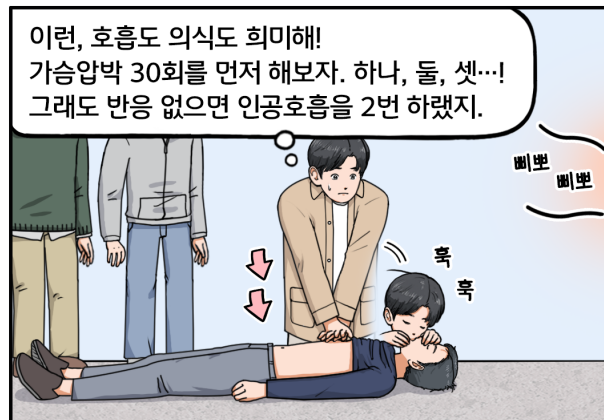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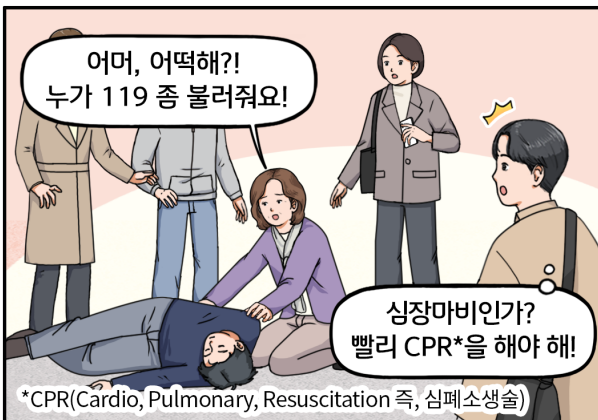
최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시작한 ‘풋살’. 패스도 드리블도, 슈트도 아직은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 없지만 공 하나로 동료들과 땀 흘리며 웃고 환호하는 시간들이 꽤나 즐겁습니다. 아직은 ‘골 못 때리는 그녀’지만 곧 ‘골 때리는 그녀’가 될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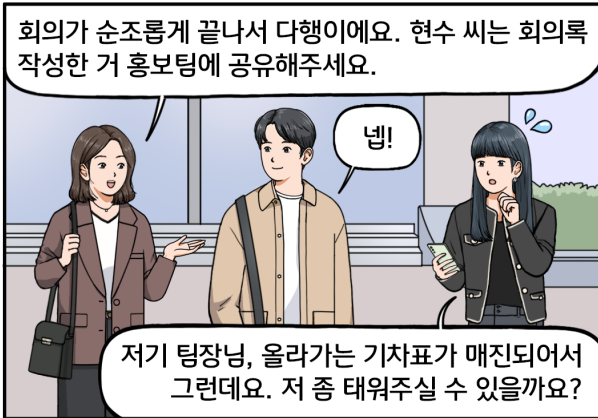
김○솔 님

#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 심장장애 편

그림 권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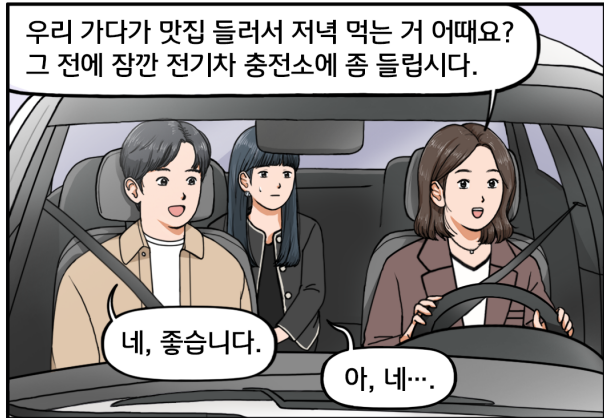




회의가 순조롭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현수 씨는 회의록 작성한 거 홍보팀에 공유해주세요.

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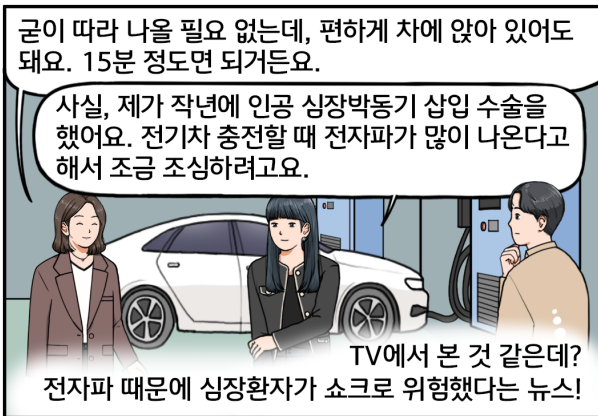
저기 팀장님, 올라가는 기차표가 매진되어서 그런데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가다가 맛집 들려서 저녁 먹는 거 어때요? 그 전에 잠깐 전기차 충전소에 좀 들립시다.

네, 좋습니다.

아, 네...



굳이 따라 나올 필요 없는데, 편하게 차에 앉아 있어요 돼요. 15분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했어요. 전기차 충전할 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 조심하려고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전자파 때문에 심장환자가 쇼크로 위험했다는 뉴스!



아이고, 그러시구나. 직장생활이 많이 힘들텐데... 혹시 장애등록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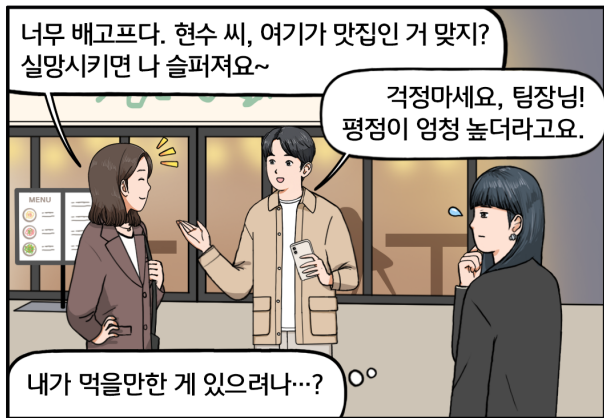
네, 올해 초 심장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하니까 회사는 다닐만해요. 저는 일하는 게 좋거든요.

와, 멋지세요.



심장장애는 흔히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막염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심장장애인은 5천여 명에 이르며, 전체 장애인의 0.2%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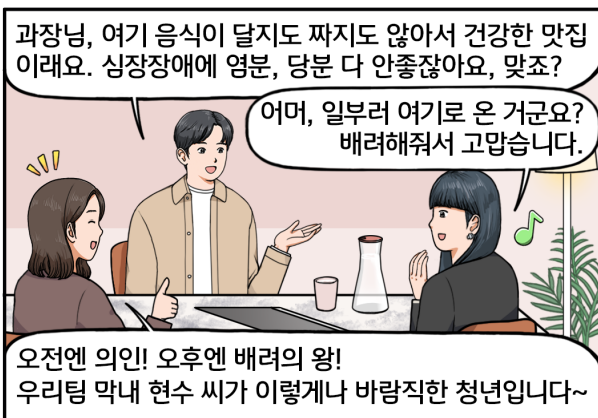
심장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구나. 걸으면 전혀 안보이니까 몰랐어.



너무 배고프다. 현수 씨, 여기가 맛집인 거 맞지? 실망시키면 나 슬퍼져요~

걱정마세요, 팀장님! 평점이 엄청 높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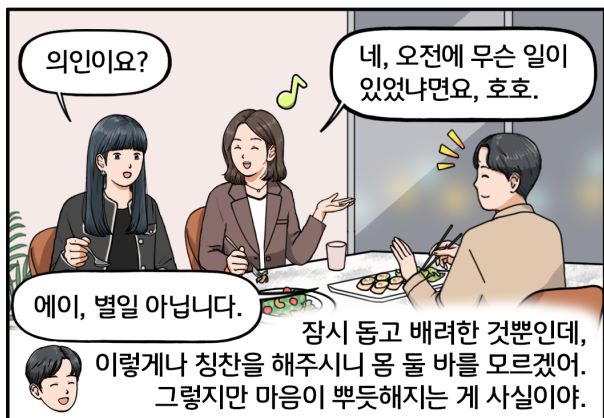
내가 먹을만한 게 있으려나...?



과장님, 여기 음식이 달지도 짜지도 않아서 건강한 맛집 이래요. 심장장애에 영분, 당분 다 안좋잖아요, 맞죠?

어머, 일부러 여기로 온 거군요? 배려해줘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의인! 오후엔 배려의 왕! 우리팀 막내 현수 씨가 이렇게나 바람직한 청년입니다~



의인이요?

네,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호호.

에이, 별일 아닙니다.

잠시 돕고 배려한 것뿐인데, 이렇게나 칭찬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 그렇지만 마음이 뿌듯해지는 게 사실이야.



## KEAD 뉴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장애인고용정책 베트남 전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분야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연수를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역량과 국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특히 한국의 장애인고용 법과 제도,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 취업지원제도 및 직업영역개발, 고용 우수사례 소개 등 주제별 장애인고용정책 전문가가 함께해 전문성 있는 한국형 공공행정 콘텐츠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의 우수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베트남 공무원의 인적 역량 강화와 장애인고용제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한국은 지난 32년간 장애인고용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며 “코로나19 이후 첫 현지 대면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 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장애인고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예술인 경주 공연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9월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직장 In 콘서트 Mind Change(마인드 체인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맞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인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체험형 교육기관인 (사)한빛재단과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 (사)희망이룸 소속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해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보컬·무용 콜라보 공연, 미술 작품 전시를 선보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 이사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우리 사회 공감대 확산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병뚜껑 모아 친환경 코딩로봇 기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9월 25일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파란꿈터, 초록꿈터, 한빛학교에 학대 아동 및 탈북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용 교구재(코봇) 40개를 기증했다.

병아리 캠페인은 ‘병뚜껑을 모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리[Re]메이크!’라는 뜻으로 공단 임직원이 참여해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코딩교육용 장난감을 기증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친환경 콘텐츠로 구성된 코딩교육용 교재(코봇)는 학대아동·탈북 청소년의 환경의식 고취와 미래세대의 논리력 신장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쓰인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 직원이 동참해 약 12만 개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했으며, 소셜벤처 ‘코끼리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또한 병뚜껑 세척·분류·파쇄 작업을 일자리와 연계해 6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 KEAD SNS 하이라이트

##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Instagram**

haha\_kead

독서의 계절, 가을에 책을 읽고 싶어요.  
지식과 문화의 공간인 도서관,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당당한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Instagram**

haha\_kead

**NEXT LEVEL, 통합공시 1화**  
웹툰을 통해 통합공시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통합공시의 개념과 중요성까지 우리 함께 확인해볼까요?



**N blog**

blog.naver.com/kead1

**세계장애동향 4호 발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전하는 세계 장애인고용 동향 소식. 이번 호에서는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사례를 전해드려요.



**YouTub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좋아요 싫어요 공유 오프라인저장 저장

**알면 편해지는 직장생활 꿀 Tip**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직결되는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오픈허브스, 조현지 프로젝트의 열정 가득한 직장생활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